

쓰루미구 다문화 공생 기본 지침

~다문화 공생사회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방향성~

2024 년 5 월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쓰루미구 다문화 공생 도시 만들기 선언

쓰루미는 세계의 도시입니다.

구민 30명 중 1명은 외국 국적자이며, 80개국 이상의 나라 사람들이 쓰루미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쓰루미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국적을 초월하여 교류하고 활동하며 쓰루미만의 새로운 문화를 키워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쓰루미의 자랑입니다.

쓰루미구는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합니다.

미래의 쓰루미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다문화 공생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을 구민, 사업자, 단체 여러분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2008년 6월

※ 2023년 12월 현재 구민 약 20명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약 100개 국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쓰루미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 1 장 수립 취지	1
제 2 장 쓰루미구 거주 외국인 현황	3
1 쓰루미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	
2 조사 결과를 통해 본 거주 외국인의 목소리	
3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3 가지 포인트	
제 3 장 쓰루미구의 다문화 공생 시책의 방향성	11
1 지향하는 모습	
2 시책 체계	
3 대책	
<수립 경과>	17

[용어해설]

본 지침에서는 '외국인'과 '국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국적이 일본 국적이 아닌 사람', '외국에서 일본에 온 사람', '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예: 보호자가 외국 국적인 사람)' 등 일본 이외의 국가나 지역에 연고가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국가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 지역을 말합니다.

제 1 장 수립 취지

쓰루미구에서는 2008 년 6 월, '요코하마 국제도시 만들기 지침'(현 요코하마시 다문화 공생 도시 만들기 지침)을 바탕으로 쓰루미구의 다문화 공생을 추진하는 행동 계획으로 '다문화 공생 추진 액션 플랜(이하 '액션 플랜'이라 함)'을 수립함과 동시에 선언한 '쓰루미구 다문화 공생 도시 만들기 선언'의 이념하에 지역, 사업자, 단체 등의 여러분과 함께 <외국인과 일본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지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 공생 도시 만들기>를 추진해 왔습니다.

액션 플랜 수립 이후, 거주 외국인의 계속된 증가와 다국적화가 진행되었고, 국가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으로 인해 체류자격 '특정기능 1 호, 2 호'가 신설되고 사회 전체에도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요코하마시에서는 2017 년에 '다문화 공생에 의한 창조적 사회의 실현'을 기본 목표로 한 '요코하마시 다문화 공생 도시 만들기 지침'을 수립하는 한편, 2021 년에는 '요코하마시 국제 전략'을 개정하며 중점 추진과제로 '다문화 공생의 추진'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시 중기계획 2022~2025'에서는 전략 2 '누구나 활기차고 평생 활약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의 정책 11 에 '다문화 공생의 추진'을 신설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38 개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국가 및 시의 동향을 바탕으로 쓰루미구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구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 년~2023 년에 걸쳐 각종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 년에 걸친 조사에서는 국가·지역별 외국인 수와 연령 구성 등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거주 외국인과 지원기관에 대한 히어링을 실시하여 쓰루미구의 살기 편한 점과 고민 사항, 정보 수집 방법 등에 대해 청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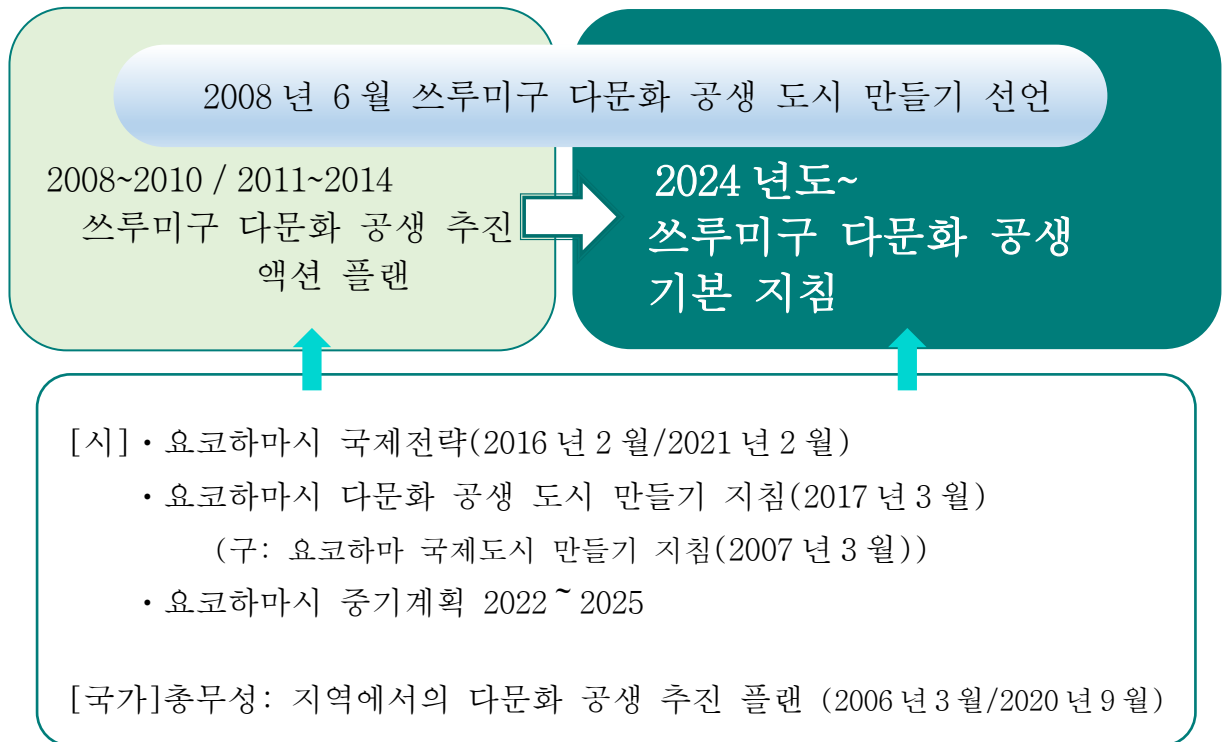
이번에 이러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액션 플랜을 재검토하는 한편, 다문화 공생사회의 발전을 위해 시책의 방향을 정리하여 '쓰루미구 다문화 공생 기본 지침'으로 새롭게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침에 따라 지역, 사업자, 단체 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지침의 위치》

액션 플랜의 재검토를 통해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포인트와 지향하는 모습, 시책을 정리하고, 향후 행정과 지역, 사업자, 단체 등의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션 플랜 수립과 동시에 선언한 '쓰루미구 다문화 공생 도시 만들기 선언'의 이념은 본 지침에서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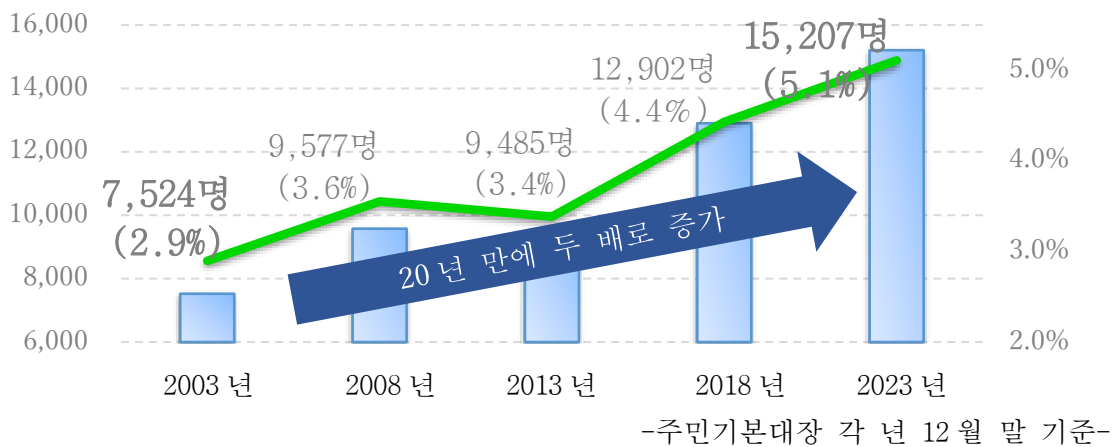
제 2 장 쓰루미구 거주 외국인 현황

1 쓰루미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

(1) 외국인 수 추이

쓰루미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03 년의 약 7,500 명에서 2023 년에는 약 15,000 명으로 늘어 20 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요코하마 시내 18 개 구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입입니다.

쓰루미구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현재 5.1%로, 구민 약 20 명 중 1 명이 외국인입니다.



(2) 국가·지역별 외국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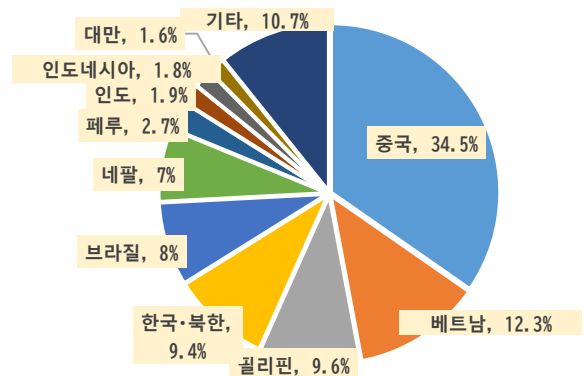
2023 년 현재, 쓰루미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국적은 중국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 세 번째 이후는 필리핀, 한국·조선 순입니다. 또한, 요코하마시 전체에 비해 브라질, 페루 등 남미계 국적이 많은 것이 쓰루미구의 특징입니다.

거주 외국인이 100 명 이상인 국가·지역은 2003 년 7 개국에서 2023 년에는 15 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언어, 문화, 관습 등의 다양성도 증가함에 따라 요구사항이나 필요한 지원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 수가 100 명 이상인 국가·지역 수> <국가·지역별 외국인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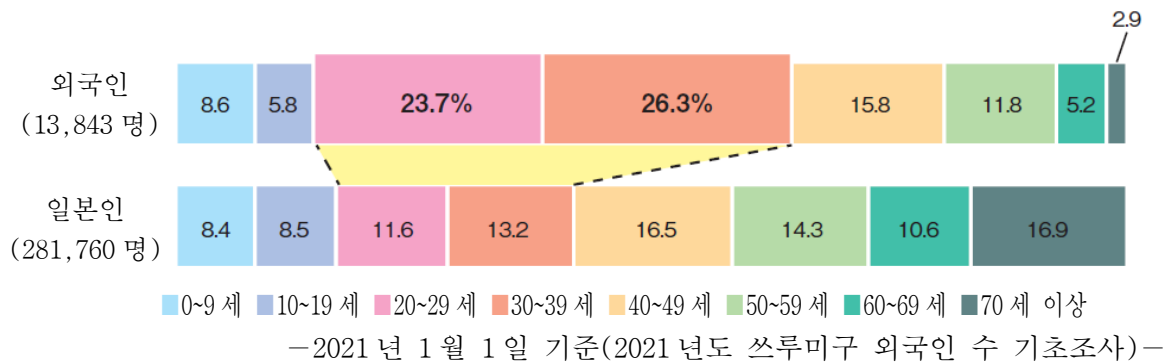
-주민기본대장 각 년 12 월 말 기준-



-주민기본대장 2023 년 12 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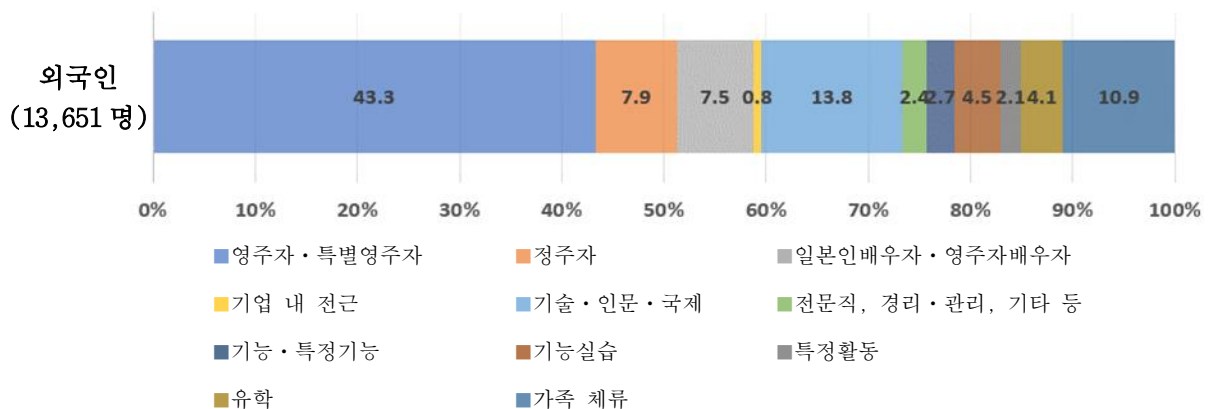
(3) 연령 구성별 비율

쓰루미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연령별로 보면 20·30 대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35.20 세(2021 년 3 월말 기준)입니다. 일본인을 포함한 쓰루미구 전체의 평균 연령 44.36 세(2021 년 1 월 1 일 기준)에 비해 10 세 가까이 젊은 수치입니다. 젊은 층과 육아 세대가 많아 지역 활동의 주역으로서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4) 체류자격별 비율

체류자격별로 쓰루미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보면, 2021 년 3 월 말 기준 '영주자'가 43.3%(특별영주자 포함)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기술·인문·국제'가 13.8%를 차지하며, '가족 체류'가 10.9%, 정주자 7.9%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기능', '특정기능(개정 입관법에 의해 신설)'은 2.7%입니다.



2021 년도 쓰루미구 외국인 수 기초조사 조사 개요

객관적인 데이터(주민기본대장 등)를 이용하여 쓰루미구 거주 외국인의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조사 내용>

쓰루미구 거주 외국인의 국적, 체류기간, 체류자격 등의 집계·분석, 지역별 특징 등

<결과 개요>

-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다.
- 체류자격별로 보면 영주자의 비율이 가장 많다.
- 쓰루미구 전체의 평균 연령은 44.36 세로, 시 전체에서 4 번째로 젊은 구이지만, 외국인의 평균 연령은 35.20 세로 더욱 젊어지고 있다 등



*** * * 외국인의 생활 지원,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 * ***

쓰루미구에서는 국제교류라운지, 국제학생회관, 일본어 지원 거점시설 '쓰루미 히마와리'(쓰루미 초등학교 내), NPO 법인 등이 외국인 지원의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초중교, 병원 등에서도 일상적인 지원을 하는 등, 구내의 많은 시설과 단체가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쓰루미구에 설치된 주요 지원 기관

쓰루미 국제교류 라운지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1-31-2 시크레인 2층
다언어(쉬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네덜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생활 상담과 정보 제공은 물론, 일본어 학습 지원과 외국과 관련 있는 어린이의 학습 지원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일본인의 교류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지원 거점 시설 '쓰루미 히마와리'(시립 쓰루미 초등학교 내)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3-19-1
일본에 온 지 얼마되지 않아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 학생과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해 '프리 클래스', '학교 가이드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리 클래스...입학 후 첫 한 달 동안 주 3일간 다닙니다. 일본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일본어 학습과 학교 생활을 체험합니다. *학교 가이드스...안심하고 일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일본의 학교 제도와 학교에서의 생활, 지내는 방법, 보호자의 역할 등에 대해 다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또한, 전화로 상담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요코하마시 국제학생회관	쓰루미구 혼초도리 4-171-23 우시오다 교류 플라자 3층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 등에게 거주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의 국제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류 행사, 외국어 교실, 유학생의 지역 행사 지원 및 참여, 초중교 등에 대한 출장 수업(모국 문화 소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을 서포트하는 자원봉사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쓰루미 구청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3-20-1
외국어 번역·통역과 '쉬운 일본어'를 사용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안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루미에서 키워온 다문화 공생에 관한 활동이 더욱 확대되어 모든 사람이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조사 결과를 통해 본 거주 외국인의 목소리

2022 년 · 2023 년도에 쓰루미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과 관계할 기회가 많은 지원기관, 의료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히어링 조사를 실시하여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점이나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히어링 조사에서 외국인 구민들은 쓰루미구에서 살기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언어의 차이로 인한 정보 수집의 어려움과 모국과의 문화 · 습관 차이로 인한 행정 · 의료 등의 서비스 이용과 지역과의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기 편하다고 느낀 점

다양한 나라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 친해지기 쉽다.
같은 나라의 친구나 직장 내 일본인 동료와 정보 교환도 하고 있다.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의
부모들은 친절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 준다.

아이가 아프면 어린이집에서 상담하고 병원을 소개받기도 했다.

일본어 교실 선생님이 일본에서의 생활과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도 가르쳐 줬다.

쓰루미는 살기 좋다. 국제교류 라운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학교가 외국어로 지원해줘서 고맙다.

지역 행사에서 모국의 음식이나 음악 등을 소개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유학생이 축제에 참가하는 지역도 있다.



생활 속 고민과 니즈

●언어에 관한 것, 평소의 정보 수집에 관한 것

근처에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일본어 교실을 운영하는 곳의 정보를 알고 싶다.

구청의 절차나 육아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
다국어로 알기 쉽게 전달해 주면 좋겠다.

일본어 교실이 있다는 것이나 지원 기관 · 서비스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 일본에 오자마자 정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구청의 서류는 글자가 많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없다. 조금 더 쉽게, 알기 쉽게 해줬으면 좋겠다.

일본어로 일상 회화는 가능하지만 구청이나 병원은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



생활 속 고민과 니즈

● 생활 전반(주거, 직장, 방재, 행정 서비스 등)에 관한 것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 예방접종이나 검사를 받을 수 있나? 진찰을 받고 싶지만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까 불안하다.

아이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고등학교 입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겠다. 입학과 수험의 구조가 어렵다.

재난이 발생하면 어디로 대피하면 좋나?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는 나라에서 왔기에 대피 훈련의 필요성도 잘 모르겠다.

연금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노후를 맞이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인이 있다.

개호보험과 연금이란? 공공시설이란? 모국에는 없는 제도나 문화의 차이가 많다. 일본에 있는 제도, 서비스에 대해 대략적인 이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 거주 중인 지역과의 관계, 지역 활동에 관한 것

외국인끼리 모일 수 있는 기회나 일본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모국의 요리나 문화를 소개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살린 일이나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축제나 행사 운영에도 참여하고 싶다.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놀이터와 이벤트가 궁금하다. 어린이회 같은 활동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

쓰루미에는 일본인과 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 그런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면 좋겠다.

자치회, 반상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 회비를 내야 하나? 활동 내용을 알면 참가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2022 년도 외국인 의식조사(대상: 지원기관·단체 등) 조사 개요

외국인 구민들의 거주 경위와 생활 실태, 지원 활동에서 보이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히어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

외국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공공시설,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총 15 개 단체

<조사 내용>

지원내용과 주요 지원대상, 외국인 구민들의 가족 구성 및 고민 사항,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 등

<주요 청취 내용>

- 지역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이 정착되어 있고, 잘 어울리고 있다.
- 일본어 교실이나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 지역 활동이나 이벤트 등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실린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
- 정보 전달 시 글자가 너무 많지 않은 심플한 자료가 좋다. 동영상도 효과적이다.

2023 년도 외국인 의식조사(대상: 외국인 당사자)

외국인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와 요구사항, 평소 지역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히어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

외국인 구민, 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 총 20 명

※국적, 연령, 가구 구성 등 다양한 속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상 선정.

<조사 내용>

체류 목적, 체류 기간, 가구 구성, 평소의 고민과 해결 방법,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정보 입수 방법, 지역과의 관계 등

<주요 청취 내용>

- 일본어를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지, 근처에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 필요한 정보는 다국어로 제공되면 좋겠다. 요점을 전달해 주는 것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활 정보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
- 모국에 없는 제도나 문화의 차이가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개호보험, 연금, 공공시설, 수험제도, 방재훈련, 자치회, 반상회 등).
- 외국인끼리 모일 수 있는 기회나 일본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 자신의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일이나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원 기관·단체에 대한 히어링을 실시하여 외국인과 평소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드러난 현황과 과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구민에게 직접 히어링을 실시함으로써 쓰루미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점이나 고민 사항, 그리고 쓰루미의 매력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3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3 가지 포인트

조사 결과와 외국인 구민을 둘러싼 상황을 바탕으로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더욱 추진해 나가기 위한 포인트를 3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포인트① 커뮤니케이션 지원 [언어, 정보 수집 기회, 학습 지원 등]

외국인 의식 조사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언어적인 면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쓰루미구 내에는 외국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 자원이 있지만, 일본에 온 지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일본어 교실이나 지원 기관·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더불어 정보 수집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한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실을 전달할 방안을 궁리하는 것도 아직은 필요합니다.

외국인 개개인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 지원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본에 온 지 얼마되지 않은 외국인이 일본의 관습과 문화를 알고 조기에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을 더욱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포인트② 생활지원 [주거, 취업, 복지, 방재 등]

외국인 구민 전체로 보면 젊은 세대와 육아 가구가 많은 반면, 쓰루미에 오래 살면서 연금과 개호 문제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고령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쓰루미에 사는 기간이나 목적도 사람마다 다르고, 필요한 서비스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선 입국 직후의 주거 및 구직 지원 외,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각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해, 질병 등 긴급 상황 대응 등 각 기관이 연계하여 외국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포인트③ 지역·사회 참여 촉진 [지역 활동 참여, 기술 발휘 등]

외국인 의식 조사에서는 외국인 구민으로부터 '쓰루미는 살기 좋고 모두가 친절하다. 앞으로도 쓰루미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 일상적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지만, 지역 활동의 하나인 자치회, 반상회에 대해서는 목적과 역할 등 기본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끼리나 일본인과의 교류하고 싶다', '모국의 요리나 문화를 소개하고 싶다' 등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역 내에서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외국인의 니즈에 맞는 활동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일본인이 같은 지역의 일원으로서 서로의 문화와 관습을 배우고 이해하는 자세와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3 장 쓰루미구의 다문화 공생 시책의 방향성

1 지향하는 모습

2008 년 수립한 액션 플랜에서는 다문화 공생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인권의 존중·옹호'를 내세웠으며, 해당 플랜 수립과 동시에 '쓰루미구 다문화 공생 도시 만들기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은 쓰루미구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존중하면서 국적을 넘어 교류·활동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미래의 쓰루미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다문화 공생의 도시"가 되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의 내용은 15 년이 지난 지금도 쓰루미구가 다문화 공생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계승해야 할 중요한 이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립하는 '쓰루미구 다문화 공생 기본 지침'에서도 동 선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지향하는 모습'을 정했습니다.

지향하는 모습

**국가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활기차게 살아가는 마을, 쓰루미**

지향하는 모습의 실현을 위해 우선 행정부가 앞장서서 「쓰루미구 다문화 공생 도시 만들기 선언」과 본 지침이 지향하는 다문화 공생 사회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움직임을 촉구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쓰루미구에는 쓰루미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다문화 공생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으며, 이러한 세대에 대한 접근을 통해 쓰루미구 전체의 공생 의식 함양과 외국인의 사회 참여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지역, 문화를 불문하고, 외국인도 일본인도, 모두가 활기차게 자기답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다문화 공생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역, 사업자, 단체 등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시책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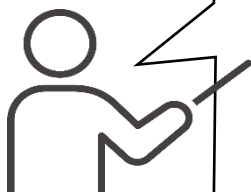
지향하는 모습	국가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활기차게 살아가는 마을, 쓰루미		
시책	시책 1 정보 접근과 상담·학습 지원 강화를 통한 관계 만들기	시책 2 개개인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 만들기	시책 3 외국인, 일본인이 서로 배우고 서로 돕는 지역 만들기
대책 예시	· 생활 정보의 다국어화 및 번역 도구의 강화, '쉬운 일본어'의 적극적 활용 · 웹·SNS 를 활용한 시의적절한 정보 발신 · 지원 기관 및 매장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니즈 파악 · 일본어 지원 자원봉사자 육성 및 학습 수요와의 매칭 촉진	· 일상적인 고민에 대한 상담 대응 · 주거·직장 찾기 지원 및 애프터 서비스 ·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 · 보육·교육 시스템 확보 · 재난 대비의 보급과 계발·지원 체제의 강화	· 기본 지침의 숙지를 통한 공생 의식 함양 · 다국어 도구의 보급을 통한 지역 내 커뮤니케이션 기회 촉진 · 외국인과 일본인이 서로의 문화·습관을 알고 교류하는 장 만들기 · 외국인의 경험·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 지역 커뮤니티의 니즈와 외국인 인재를 매칭하는 시스템 만들기

전문가의 메시지

[요코하마시립대학 쓰보야 미오코 교수님으로부터]

쓰루미구는 2008년 다문화 공생 도시 만들기 선언과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등, 시에서 가장 먼저 다문화 공생 시책에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시책이 일정한 역할을 다하여 이번에 다문화 공생 기본 지침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구 차원에서 다문화 공생 지침을 마련한 것도 시에서는 쓰루미가 처음이므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책 1'에서는 외국인이 모국으로 송금할 때 이용하는 우체국이나 식재료를 구입하는 가게를 정보 발신 거점으로 삼는 등 전국적으로도 획기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책 2'에서는 외국인 구민의 라이프 코스에 맞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책 3'의 일본인과 외국인이 서로 돕고, 외국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다문화를 '당연시'하는 쓰루미에서 자란 젊은 세대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가 실현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3 시책

지향하는 모습의 실현을 위해 다음 3가지 시책을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은 각각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포인트인 ① 커뮤니케이션 지원 ② 생활 지원 ③ 지역·사회 참여 촉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포인트① 커뮤니케이션 지원

[시책 1] 정보 접근과 상담·학습 지원 강화를 통한 관계 만들기

외국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권리·의무를 알 수 있도록 다국어화 및 발신 방법의 고안, '쉬운 일본어'의 활용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어 학습의 기회를 충실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책의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정보의 다국어화 및 번역 도구의 강화, '쉬운 일본어'의 적극적 활용
- 웹·SNS를 활용한 시의적절한 정보 발신
- 매장, 우체국 등의 정보 발신 거점 및 지원 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니즈 파악
- 일본어 지원 자원봉사자 육성 및 학습 수요와의 매칭 촉진

포인트② 생활 지원

[시책 2] 개개인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 만들기

각 생애주기와 거주기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 언어, 제도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외국인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책의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일상적인 고민에 대한 상담 대응
- 주거·직장 찾기 지원 및 애프터 서비스
-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
- 보육·교육 시스템 확보
- 재난 대비의 보급과 계발·지원 체제의 강화

포인트③ 지역·사회 참여 촉진

[시책 3] 외국인, 일본인이 서로 배우고 서로 돕는 지역 만들기

외국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자기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문화 공생 풍토를 조성합니다.

시책의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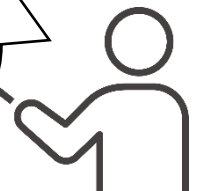
- 기본 지침의 숙지를 통한 공생 의식 함양
- 다국어 도구의 보급을 통한 지역 내 커뮤니케이션 기회 촉진
- 외국인과 일본인이 서로의 문화·습관을 알고 교류하는 장 만들기
- 외국인의 경험·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 지역 커뮤니티의 니즈와 외국인 인재를 매칭하는 시스템 만들기

전문가의 메시지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야나기다 나옴이 교수님으로부터]

본 지침은 증가·다양화되는 외국인 구민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정으로 쓰루미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슬로건으로서의 '다문화 공생'이 아닌, 일본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의 연계를 기본으로 한 본 지침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외국인이 살아온 쓰루미구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문화를 넘어선 커뮤니티 연계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일본어 교육 지원, '쉬운 일본어'로의 정보 제공이라는 양 방향의 접근을 통해 주민들 간의 연계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쓰루미에서 다문화 공생에 힘쓰는 사람들]

쓰루미구에서는 구청과 국제교류 라운지 외에도 사업자, 단체, 지역 내 다문화 공생에 대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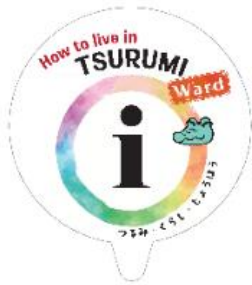
(1) 외국인 대상 정보 발신 강화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가게와 레스토랑, 우체국 등을 정보 발신 거점으로 정비하고, 다국어 정보 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How to live in TSURUMI ward

- つるみ・くらし・じょうほう>라는

로고 마크가 표식입니다.



설치 위치는 여기에서



정보 발신 거점

(2) 다국어 대응과 '쉬운 일본어' 추진



구청 창구

쓰루미 구청에서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조선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의 태블릿 단말기를 이용한 영상 전화 통역 서비스, 번역 기기의 활용, 각종 자료의 다국어화를 추진하는 한편,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고안된 '쉬운 일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 자립을 위한 지원

학습 지원 및 진학・자격증 취득 지원 활동으로 NPO 법인이나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외국과 연관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리 스쿨과 방과 후 교실, 고등학교, 대학 진학, 커리어 가이드스 외 성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본어 교실이나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시험 대비 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NPO 법인 ABC 재팬

(4)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원



쓰루미 국제교류 라운지

쓰루미 국제교류 라운지에서는 외국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국어 생활 상담 및 다국어 지원 정보 제공 외에도 일본어 학습 지원 사업과 외국과 연관된 어린이의 학습지원 교실, 외국인 부모와 자녀를 위한 일본어 교실과 생활지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지원 거점 시설 '쓰루미 히마와리'에서는 일본에 온 지 얼마되지 않아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프리 클래스', '학교 가이드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다양한 문화 교류, 외국인들의 활약의 장 만들기

외국인 유학생 및 연구자 거주시설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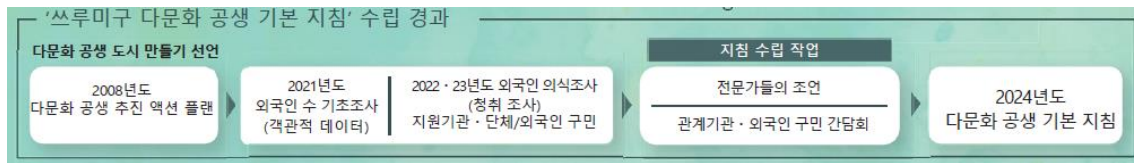
요코하마시 국제학생회관은 유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실 개최와 유학생들의 초중교 등에서 모국 소개 수업 실시 외, 지역 축제나 떡치기 참가 등 유학생들이 지역의 일꾼으로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혼초 퍼레이드(2023 년 6 월)

<수립 과정>



쓰루미구에서는 2008 년 '쓰루미구 다문화 공생 추진 액션 플랜', '쓰루미구 다문화 공생 도시 만들기 선언'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거주 외국인의 계속된 증가와 다국적화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2021 년부터 구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22 년 · 2023 년도의 외국인 의식조사에서는 지원기관 · 단체 외에 보육원이나 학교, 의료기관과 매장 등에 의한 지역 내 외국인 지원의 모습과 거주 외국인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점이 있는 한편, 쓰루미구에 매력을 느끼는 점이나 지역과의 교류를 희망하는 점 등이 밝혀져 외국인의 거주 편의성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이후에도 전문가, 관계 기관, 외국인 구민 등에게 본 지침에 대한 의견을 받아, 지향하는 모습이나 시책 등의 내용에 반영하는 한편, 수립 후의 전개 방법에 대한 조언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과의 인연이야말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다문화 공생에 힘써온 쓰루미구의 힘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다문화 공생의 고리가 지역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은 물론, 쓰루미구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활동하는 모든 분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국가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활기차게 살아가는 마을, 쓰루미'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쓰루미구 다문화 공생 기본 지침 ~수립에 협조해 주신 분들~

요코하마시립대학 쓰보야 미오코 교수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야나기다 나오미 교수
요코하마시 국제교류협회
요코하마시 국제학생회관
일본어 학습 지원 거점 '쓰루미 히마와리'(쓰루미 초등학교 내)
NPO 법인 ABC 재팬

그 외에도 외국인 의식조사, 정보 발신 거점 설치 등에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쓰루미구 다문화 공생 기본 지침

발행 쓰루미구청 구정추진과

〒230-0051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쓰루미쵸 3-20-1

[TEL] 045-510-1676

[FAX] 045-504-7102

[E-mail] tr-kusei@city.yokohama.jp